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No’ 전주시, 특별감시 체계 가동

추석 명절 앞두고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감시활동 전개

전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시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시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꾸려 공업단지와 하천, 오염물질 불법배출 우려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특별단속반은 추석 연휴 전까지 환경오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중심의 순찰 활동에 나서고 대기와 폐수 등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

전홍보와 계도에 집중한다.

이어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공업지역 주요 배출사업장과 전주천·삼천 등 주요 하천, 하천 인근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활동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나 환경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이 접수될 경우 즉각 대응기로 했다.

또한 시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불법 행위 적발 업체에 대한 처분 및 감시 기간 중 확인된 취약 업체, 장기간 시설 가동을 중단한 영세업체, 지원요청 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관리·감독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연휴 기간 중 집중 감시활동을 통해 사업장에 경각심을 높이고, 단 한 건의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나 오염 사고 발견 시에는 환경신문고(063-128)나 시청 상황실(063-281-222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

전주시, 시민 맞춤형 교육 추진
지난 3~8월 총 444회 걸쳐 진행
총 1만7800여명 교육에 참여
올 연말까지 교육 진행키로

전주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며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총 444회 걸쳐 진행된 맞춤형 탄소중립 시민교육에 1만7,800여명이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전문 교육을 받은 시민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에는 8,60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총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강사 교육’은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체험형 방식을 적용해 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이 가운데 아동 눈높이에 맞춘 ‘탄소중립 아동극’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 430명을 대상으로 공연이 이뤄졌으며, 시는 급증하는 수요에 발맞춰 올 연말까지 13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극을 운영할



전주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예정이다.

시는 또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시민강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보수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3월까지의 교안 연구·발표회를 통해 신규 교안을 개발하고, 교육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아동기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1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대회의 성공을 이끌어갈 공무원 서포터즈인 ‘드론지기’의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드론지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막바지 준비 박차

시 공무원서포터즈 ‘드론지기’ 발대식… 대회 종합 안내 등 선수단·관람객 편의 제공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 개막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가 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선수단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1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대회의 성공을 이끌어갈 공무원 서포터즈인 ‘드론지기’의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경제산업국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주시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 홍보영상 상영 △드론지기 대표 선서 △월드컵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 △월드컵 행사 안내 △드론지기 근무 매뉴얼·분야별 역할 안내 및 사전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드론지기로 활동하게 될 공무원들은 대회 기간 자신의 역할을 책임과 열정을 다해 수행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

드론지기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현장에 배치돼 △대회 종합 안내 △경기장 및 부대 행사장 지원 △주차·수송 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수단과 관람객의 편의를 돕게 된다.

이와 관련 전주 섬유제품 제조기업인 ㈜한살이패럴이 대회 응원 티셔츠를 제작해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하며 성공 개최 분위기를 더했다.

향후 드론지기들은 현장에서 해당 티셔츠를 착용하고 친절한 미소와 따

뜻한 마음으로 전 세계 선수단과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남은 기간 현장 운영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교통·숙박·식음 등 선수단 편의 지원 사항을 최종 확인해 대회 기간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종욱 전주시 부시장은 이날 “드론지기가 전주시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임한다면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드론축구선수단과 관람객이 즐거움과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디지털 기술 접목 혁신·시민 제안사업 반영

전주시설공단, 내년도 주요 추진과제 논의… 연말까지 계획 보완

전주시설공단은 2026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전일부터 이틀간 부서별 사업계획 보고회를 열고 내년 주요 추진 과제에 새 정부 국정과제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침을 반영한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부서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부서별 계획을 공유하고 보완책을 검토했다.

특히 AI와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 사업과 시민 제안 사업을 반영하고, 청년·사회적 약자·소상공인 등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내년 경영계획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AI 기반 안전관리,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혁신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보완·확정한 뒤 내년 1월 최종 경영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시의회 의원들

원주지역 소비활동 나서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원주·전주 상생 협력 의지를 다지고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 원주지역 소비 활동에 나섰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의원 등 20여 명은 지난 10일 원주 경천면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원주와 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활동은 원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민과 상권의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